



KGSS-2006 조사원 면접지침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전화) 02-760-1270 (팩스) 02-744-6169
src@dragon.skku.ac.kr <http://www.src.re.kr> <http://www.kgss.re.kr>

목 차

PART 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소개

1. 조사개요	1
2. 조사내용	2
3. 표집방법	5
4. 현지조사	6
5. 자료이용	6

PART 2. KGSS-2006 조사원 면접 지침

1. KGSS-2006 표집틀 작성절차 소개	31
2. KGSS-2006 현지조사 지침	41
3. KGSS-2006 설문구성	35

부 록

1. 현장조직 및 연락망	41
2. KGSS-2006 조사일정	42
3. 가구원리스트(예시)	43

PART 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소개

1. 조사 개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매년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회 기초 자료를 생산해서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과학 기초 자료 창출 및 확산 사업이다.

이 조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삼고,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들의 내용을 일부 수용함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적절히 고려해서 설계된다. 그 설문지는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한국을 포함한 40여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회원국들이 매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ISSP annual topical modules),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이 격년 주기로 공동 개발하여 조사하는 EASS 주제모듈(EASS biannual topical modules), 그리고 특별 연구를 위한 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s)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고, 현지조사는 전국 가구로부터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multi-stage area cluster sampling)으로 추출한 표본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KGSS는 여느 조사와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첫째, 설문구성, 표본추출, 현지조사, 자료처리 등 조사의 전 과정에서 조사방법의 원칙을 엄정히 준수한다. 둘째, 한국사회의 주요 구조적 구성 요소들을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자료를 생산한다. 셋째, 반복핵심설문 이외에도 다양한 모듈들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통시적 사회변화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넷째,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공동으로 모듈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제 비교 연구를 가능케 한다. 다섯째, 생산된 통계 원자료(raw data)를 공신력 있는 국내외의 사회조사 데이터 아카이브(data archives)에 저장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자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이용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한다. KGSS는 이처럼 ‘양질의 사회조사 자료의 공익적 생산과 확산’을 기본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 자료의 학술적 가치, 활용도, 기여도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

2. 조사 내용

KGSS는 반복핵심 조사, ISSP 주제모듈 조사, EASS 주제모듈 조사, 특별 주제모듈 조사 등을 통합하여 시행하는데 각 조사의 성격과 내용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핵심 조사

반복핵심 조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서, 그 설문은 각종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의 핵심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300여 개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이 설문은 학술적 중요성이 현격한 주요 사회적 사안들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회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포착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내용은 미국의 GSS를 위시해서 유럽의 20여 개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ESS(European Social Survey), 일본의 JGSS(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s), 대만의 TSCS(Taiwan Social Change Survey) 등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문항들에 한국의 사회문화적·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예, 민족통일, 정치이념, 경제·노동 문제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반복핵심 설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 관련 문항: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선호정당, 정당 평가, 국정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민족통일 문제 등

(2) 경제 관련 문항: 경제만족도, 경제전망, 자본주의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평가, 대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등

(3) 사회 관련 문항: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 신문구독 및 TV시청, 인터넷·이메일·휴대전화의 사용 행태 등

(4) 배경 변수 문항: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과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ISSP, EASS, ESS 등 국가간 비교연구를 지향하는 국제조사협력체들에서는 표준화된 분석을 위하여 이른바 ‘표준배경변수’(Standard Background Variables)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로서 KGSS의 반복핵심 설문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2) ISSP 주제모듈 조사

ISSP는 국제비교분석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에 창립된 국제사회조사기구로서(<http://www.issp.org>), 2006년 현재 40여개 국가가 그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의 회원국들은 매년 개최하는 총회에서 조사 주제를 정하고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로부터 산출되는 자료는 국제비교 연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ISSP가 지금까지 개발하여 공동으로 조사한 주제모듈은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1985, 1990, 1996),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1986, 2001),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1987, 1992, 1999),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Family & Changing Gender Roles)」(1988, 1994, 2002), 「노동지향(Work Orientations)」(1989, 1997), 「종교(Religion)」(1991, 1998), 「환경(Environment)」(1993, 2000),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1995, 2003), 「시민권(Citizenship)」(2004) 등 모두 9가지이다. 2005년 조사의 주제모듈은 「노동지향 III」이었으며, 2006년의 「정부의 역할 IV」, 2007년의 「레저와 스포츠(Leisure & Sports)」, 그리고 2008년의 「종교 III」 모듈 조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 모듈들 가운데 두 개의 모듈(「시민권」, 「레저와 스포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년 주기(약 5~8년)로 2~4회씩 이미 순환적으로 지정되어 조사된 바 있다. 순환 조사되는 모듈에는 통상적으로 예전 모듈 문항의 2/3 이상이 포함되며, 새 문항의 도입이나 기존 문항의 수정은 새로이 부각되는 사회적·학술적 중요성에 의거해서 회원국들 간의 토의를 거쳐 결정된다. 2006년 현재 「레저와 스포츠」를 포함해서 ISSP가 지정해놓은 모듈들은 총 10개이므로 향후 더 이상 새로운 모듈이 지정되지 않는 한 이 모듈들은 대체로 10년 간격으로 순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ISSP 모듈 조사는 본 연구소(SRC)가 2003년 ISSP 총회(Obernai, France)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원기관으로 공식 지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는데, 2003년 제1차 KGSS에서는 당해 연도 지정모듈인 「국민정체성 III」에 부가하여 「노동지향 II」(1997) 및 「사회불평등 III」(1999) 그리고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 III」(2002) 모듈의 축약본을 포함시켜 조사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4년의 제2차 KGSS에서는 당해 연도 지정모듈 「시민권」에 「사회연결망 II」(2001) 모듈을 부가하여 조사하였으며, 2005년 제 3차 KGSS에서는 「노동지향 III」(2005)모듈을 조사한 바 있다.

올해 제4차 KGSS에서는 「정부의 역할 IV」(2006) 모듈을 반복핵심 설문과 통합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의 역할 IV」(2006) 모듈은 1985·1990·1996년에 이은 4번째 순환 조사로 그 내용은 시민적 권리에 대한 태도(예, 준법정신, 대정부 불복종행위 및 극단주의적 행위에 대한 용인도), 큰 정부 및 작은 정부에 대한 태도,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인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및 정부 기여도 평가, 정부의 시민 사생활 침해 권한 용인도, 시민의 정치영향력 평가, 조세형평성, 의사결정에 대한 연고주의 영향 평가, 부패심각도 평가 등이 조사될 것이다.

3) EASS 주제모듈 조사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하는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기관들 사이에 국제지역연구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의 주도로 최근에 신설된 동아시아 사회조사 기구이다. 이 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GSS 형태의 사회조사들(한국의 KGSS, 일본의 JGSS, 중국의 CGSS, 대만의 TSCS)이 공동 연구를 위해 격년 주기의 주제모듈(biannual topical modules)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사할 것을 추구하는데, 세계적 규모의 ISSP(1984년 창설) 및 유럽 대륙의 ESS(2002년 창설)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세계 세 번째로 창설된(2003년) 사회조사 연대기구이다.

올해는 EASS 모듈조사의 원년으로 그 주제는 「동아시아의 가족」(Families in East Asia)이다. 「동아시아의 가족」모듈은 결혼·이혼·성 역할 태도, 가부장제적 가족주의, 가족우선주의, 상속 관련 태도, 남아선호, 효 관련 태도, 가족결속력, 부부결속력, 부부의사결정권,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실태, 세대간 지원

관계, 일과 가족 관련 태도 및 행위, 배우자 선택 시 부모의 영향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표집방법

KGSS의 모집단은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이다. 제1, 2차 KGSS에서 표본의 크기는 2,000이었으나 제3차 KGSS부터는 표본오차를 줄이고 유효표본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크기를 2,500으로 증대시켰다. 표본추출방법은 제1, 2, 3차 KGSS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multi-stage area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최종 표집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1차 표집단위(PSU)인 전국의 광역시·도의 가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2)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2차 표집단위(SSU)인 동·읍·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 (3) 이렇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럭(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적으로 선정한다.
- (4)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의 표집틀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두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계통 표집한다.
- (5)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늦은(실제 생일 기준)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삼는다.¹⁾

이와 같은 표집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있다. 첫째, 표집 단위가 가구와 개인의 복합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구 리스트를 표집틀로 해서 먼저 가구를 표집한 후 표집된 가

1) 제 1, 2, 3차 조사에서는 표집된 가구원 중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최종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구 내에서 한 가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적으로 구획된 지역을 여러 단계에 걸친 집락 선정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표집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의 효율성까지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4. 현지조사

현지조사는 지도교수 1인과 연구원보 1명 그리고 학부생 면접조사원 5-20명으로 이루어진 전국 18개 대학의 현지조사팀에 의해서 수행된다. 현지조사기간은 2006년 6월 25일부터 2006년 7월 17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시행되며, 설문기입은 면접자 기입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라도 표본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지조사가 거의 완료될 시점부터 표본 대체 여부를 전화조사 및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대체가 발견되는 경우 예외없이 모두 재조사한다. 또한 설문지를 검토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사례들에 한해서 보충조사를 실시한다.

5. 자료 이용

KGSS는 조사방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그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 KGSS는 ISSP의 연차 주제모듈을 포함해서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반복조사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한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와 국제비교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다음에서는 KGSS 자료의 서비스와 기대되는 학술적 및 사회적 활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KGSS 자료 서비스

KGSS의 원자료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 부설 『한국사회조사데이터아카이브(KOSSDA)』(<http://www.kssl.or.kr>)에 영구 보존되어 국내외 사회과학자와 사회과학도 및 기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된다. 동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KGSS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

며, 원자료 이외에도 설문지, 코드북 및 원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이나 저서, 진행 중인 연구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KOSSDA를 통한 아카이빙 서비스와 별도로 서베이리서치센터는 KGSS 홈페이지(<http://www.kgss.re.kr>)를 구축하고 KGSS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연구설계 그리고 코드북 인덱스 등을 웹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KGSS 코드북 인덱스는 변수명, 변수값, 빈도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KGSS 자료를 분석해서 산출된 각종 연구결과물(학회발표문, 출판저서, 학술지 게재논문 등)의 원문 및 색인 목록 등도 제공한다.

KGSS 자료 중 ISSP 주제모듈 자료는 ISSP의 아카이브 'Zentralarchiv fuer Empirische Sozialforschung, University of Cologne(<http://www.gesis.org/ZA>)」에도 저장되어 다른 회원국들의 자료와 함께 전 세계에 동시에 서비스된다. 이와 더불어 2003년부터 매년 KGSS 통계자료집도 발간하고 있는데, 이 자료집은 우리 사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원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긴요한 자료 이용의 지침서가 된다.

2) 학문적 활용

(1) 한국사회에 대한 횡단적 연구

KGSS 자료는 매우 상세한 수준의 기초적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들과 함께 주요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가치, 태도 및 행위 등을 묻는 방대한 내용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 영역에 대한 주제별 탐구를 가능하게 하며 한국사회의 다각적인 측면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더구나 ISSP의 연차적 주제모듈조사 자료는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반복핵심설문 자료와 결합하여 수많은 주제연구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향후 KGSS를 활용한 각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의 축적은 한국사회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변동의 연구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속도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및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보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계열적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KGSS는 주요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태도 및 행위를 매년 반복하여 조사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해마다 반복 조사된다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몇 년 동안의 KGSS 자료는 시계열적 연구에서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KGSS가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변화의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자연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KGSS 자료의 시계열성은 반복핵심질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ISSP 주제 모듈들은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순환적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ISSP 모듈 조사 또한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예를 들어, 1987년 주제 모듈인 「사회불평등」은 1992년과 1999년에 반복 조사되었으며, 1988년의 주제 모듈인 「가족과 성역할 변화」의 경우 1994년과 2002년에, 1995년에 조사된 「국가정체성」 모듈은 2003년에 반복 시행된 바 있다. ISSP 주제 모듈들의 이러한 순환조사는 연구의 지평을 횡단적인 국제비교연구는 물론, 이를 넘어서 시계열적인 국제비교연구로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준다.

(3) 국제비교연구

ISSP는 중요 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다. ISSP의 회원들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사회과학 연구기관들로서 대부분이 각 국가의 주요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만큼 ISSP의 조사는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자료를 산출해 왔다. ISSP의 모듈들은 주제별로 구성된 개발팀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 작성되고 사전검사를 거쳐 완성된다. 지금까지 ISSP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모듈은 「정부의 역할」(1985, 1990, 1996), 「사회연결망」(1986, 2001), 「사회불평등」(1987, 1992, 1999), 「가족과 성역할 변화」(1988, 1994, 2002), 「노동지향」(1989, 1997), 「종교」(1991, 1998), 「환경」(1993, 2000), 「국가정체성」(1995, 2003) 등이다.

ISSP는 회원 기관들이 제출한 원자료의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성, 연령, 교육,

경제활동 상태 등)을 해당 국가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예를 들어, 인구 센서스 등)과 교차 검토하여, 그 자료가 해당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될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한 다음 아카이빙 한다. ISSP 자료는 이같이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들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

KGSS 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연구는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제도적 일반성의 파악은 물론이요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에 기인하는 각 국가의 특수성과 상대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4) 사회조사방법론 연구

KGSS 자료는 한국사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연구에도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사회조사가 시행되나, 대부분이 조사방법의 원칙을 엄정히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KGSS는 국제적 기준의 사회조사방법을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에 KGSS 자료 산출 방법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많은 사회조사들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사회조사자료 수집 방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서, KGSS 자료는 각종 방법론적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데, KGSS 자료를 이용한 방법론적 연구과제들로는 조사표 구성, 각종 설문척도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과 그러한 반응과 응답자의 배경변수와의 상호작용, 항목별 무응답 성향과 무응답으로 인한 오차 측정, 표집의 대표성, 국제비교 연구방법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해마다 수집된 KGSS 자료를 통해 자료수집 방법론상의 문제들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일차적으로는 KGSS 자료의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내 사회과학계의 방법론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적 활용

KGSS와 ISSP 자료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미국 GSS 자료가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언론 기관, 영리 및 비영리 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GSS 자료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초록(Statistical Abstracts)』을 비롯한 여러 정부통계자료집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법원에 제출된 20개의 판결문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의 여러 기구들은 물론 UN이나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GSS 자료를 빈번히 인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GSS 자료가 언론기관에서 언급된 횟수를 보면 1995년에 184회이던 것이 1999년에는 299회로 증가하였다. GSS 자료를 보도 자료로 이용하는 언론기관은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A Times 등 주요 신문사, 그리고 NBC 등의 주요 TV 방송국들이다. GSS 자료는 또한 적십자사와 같은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GM이나 P&G와 같은 기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GSS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과 관련해, GSS를 책임지고 있는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자의 역할을 기상학자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Davis, N. J, Tom Smith, and P. V. Marsden. 2000. "A Proposal to Continue 'A National Data Program for the Social Sciences.'" NORC Working Paper). "언론이나 상업적인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특정 이슈들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부각하는 시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상학자들이 가뭄이나 폭우에 상관없이 언제나 강수량 측정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일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를 읽어내는 데 있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 현재와 변화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GSS 자료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은 앞서 기술된 자료의 우월성을 고려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

KGSS의 기초 통계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 시리즈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 관계, 기업계, 언론계 등에서도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자료집이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

부, 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의 운영자에게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고급통계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4) 교육과의 연계 활용

KGSS는 교육 자료로서도 이용 가치가 매우 크다. 다시 미국 GSS를 예로 들자면, 매년 약 25만 명의 학생들이 GSS 자료를 활용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출판된 226종의 대학 교재에 GSS 자료가 인용되었으며, 많은 대학 교수들이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학 및 관련 학과목에서 GSS 자료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조사방법과 통계학 과목의 실습자료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GSS는 ISSP의 주제모듈을 포함하여 조사내용이 광범위하고 매년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산출되는 자료는 많은 시계열적 연구와 국제비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계열의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KGSS 자료를 학위 논문에 향후 더욱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PART 2. KGSS-2006 조사원 면접 지침서

KGSS-2006 표집틀 작성절차 소개

사회조사에서 원칙에 따라 표집을 하고, 정해진 표본에서 응답을 얻어내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KGSS는 모집단에서 최종 표본을 선정하기까지 체계적이고 엄격한 표집절차를 준수한다. 그리고 SRC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및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등 국제사회조사 기구들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적인 표집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세계 수십 개 나라들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표집의 세부 절차

1차 표집: 전국의 7개 광역시와 9개 도를 1차표집단위로 삼고 2차표집단위인 200개 읍/면/동을 각 광역시 또는 도에 인구비례(PPS)로 할당함.

2차 표집: 각 광역시/도에서 할당된 수만큼의 2차표집단위인 읍/면/동을 인구비례 확률표집법으로 추출함.

3차 표집: 2차 표집단위에서 추출된 읍/면/동에서 1개 통반 및 리를 추출함.

최종 표집: 해당 통반 혹은 리의 표집틀을 작성한 후, 여기에서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가구를 계통 추출하고, 각 가구의 가구원리스트를 작성한 후 태어난 월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 한 명을 선정함.

KGSS-2006 현지조사(Fieldwork) 지침

1. KGSS 현지조사 방법: 면접(Interview) 서베이

사회조사에 있어 조사 대상 집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한 다음, 행한 것의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 조사 대상의 표본을 선택하고, 이들에게 표준화된 설문을 수행하는 서베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 대상을 관찰하는 질적 현장 관찰 방법; 그리고, 사료나 수치자료 등의 관찰 및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이 그 예이다.

KGSS에서 수행하게 되는 현지조사 방법은 서베이, 즉, 선택된 조사 대상에게 표준화된 설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베이의 방법에는 전화로 실시하는 전화 서베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응답자가 직접 설문에 응답을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서베이, 그리고 면접을 통해 설문을 하고, 면접원이 응답을 기입하는 면접 서베이 등이 있다. 응답자 대신에 조사원이 설문지를 기록하는 면접 서베이는 전화나 자기 기입식 서베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달성하고, '모름' 이나 '무응답'의 수를 감소시키고, 응답자의 설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KGSS의 현지조사는 면접 서베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조사원의 역할

현지조사는 KGS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집틀, 설문 등이 아무리 훌륭하게 구성되었을지라도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 조사원의 태도

▶ 중립성

KGSS는 응답자의 경험이나 의견을 묻는 설문이다. 조사원은 자신의 행위, 언행, 태도, 복장 등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7쪽의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참고)

▶ 비밀 보장

조사원은 응답자가 면접과정에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응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유출을 걱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 ☞ 자료 처리 과정에서 응답자의 이름이 제거되므로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다.
- ☞ 조사결과는 오직 통계적인 형태로만 공표된다.
- ☞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과는 자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 ☞ 응답자가 계속해서 의심을 할 경우, 서베이리서치센터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서베이리서치센터 02-760-1270 , [www. src.re.kr](http://www.src.re.kr) 혹은 www.kgss.re.kr)

2) 조사원의 자질

▶ 자발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조사원은 매일 매일 일을 하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서 일을 시작하고, 설문을 완성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조사원은 준수사항을 엄수하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과제수행과 목표설

정, 전략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도중에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연구원보와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조사원은 신뢰감을 줌으로써 응답자가 우리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편안하게 면접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조사원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가 있는데, 조사원은 항상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원은 다양한 배경, 연령,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면접하게 되므로, 자신과 다른 생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짜증스러운 상황, 예컨대 응답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던가, 좋지 않은 날씨에 밖에서 면접을 해야 한다던가, 혹은 면접 시간과 날짜를 바꾸기 위해 응답자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다던가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조사원이 응답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얻어내는 자료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 뿐 아니라 공공정책입안자, 학생, 일반 국민 등에게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신뢰성 높은 자료는 연구 및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조사원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습득한 경험들은 후에 서베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데 훌륭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3) 조사원의 임무

현장에서 성공적인 면접을 하기 위해서 조사원들은 면접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들을 무리없이 수행해야 한다.

- ☞ 응답자 찾아가기
- ☞ 응답자의 협조 얻어내기
- ☞ 응답자와의 약속 지키기 (주말이나 늦은 혹은 이른 시간)
- ☞ 면접지침 숙지하기
- ☞ 기간 내 목표 완수하기
- ☞ 연구원보 및 서베이리서치센터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4) 조사원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면접과정에서는 조사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응답자의 응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사원은 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스타일 오류

첫인상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오류이다. 조사원의 목소리 억양, 얼굴 표정, 외양, 행동, 태도 등에 따라서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

▶ 목소리

응답자와 만날 약속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가구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처음 30초 동안 조사원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면접의 성사가 좌우된다. 조사원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과 이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하며, 특히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응답자의 관심을 유발해내야 한다. 조사원은 정확한 발음, 자연스런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 응답자를 만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의상

종종 첫인상이 면접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상을 갖추는 것이 좋다. 적절한 의상은 면접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입이 낮은 가구의 사람들을 면접하게 될 경우,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의사나 교수 등 수입이 높은 사람을 면접하거나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야 할 경우 그 분위기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조사원은 항상 단정하면서도 전문가적인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의상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태도

조사원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응답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비구어 오류

몸짓이나 얼굴표정 등에 의해 나타나는 비구어(non-verbal) 오류의 특성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이것이 설문조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답자가 말을 할 때 조사원이 눈썹을 올리는 행위 하나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미소를 짓는 것조차도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가 자신의 태도에 의해 영향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전문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 구어 오류

조사원의 질문, 프로빙(probing), 심지어 질문과 질문을 연결하는 말이나 응답자의 질문에 대한 조사원의 말 한마디도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응답자의 응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응답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며, 응답자가 인자해

보인다던가 하는 등 응답자의 성격에 대한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3. 조사의 구체적 단계

1) 표본가구 추출

-- <표본틀 작성절차 소개 참고>

2) 표본가구 방문, 응답자 선정

조사원들은 아래와 같은 최종표본가구 리스트를 담당지역에 따라 받게 된다.

조사구번호

002-	표본가구번호	가구주소	비고
	1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B02호
	2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102호
	3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202호
	4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302호
	5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402호
	6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202호
	7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2층단독가구 1층식당
	8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지하B02호
	9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202호
	10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102호
	11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302호
	12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2층단독가구
	13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45통 4반 ***-**-****번지	203호

조사원들이 방문하게 될 표본가구는 이미 해당 지역 담당 연구원보들이 직접 방문해서 표본가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이 주소로 조사 협조를 부탁하는 편지를 발송한 상태이다. 조사원은 해당 지역에 조사를 나가기 전에 연구원보에게 조사지역과 표본 가구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위의 표에서 '조사구번호=002'는 강남구 역삼1동에 할당된 조사구번호를 의미하며, '표본가구번호'는 역삼1동의 13가구에 대한 할당번호이다. 조사원들은

모든 설문지와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에 해당 조사구번호와 표본가구번호를 기입하여, 조사한 가구와 완료한 설문지와의 혼동이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표본가구를 찾는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관계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관내도를 이용
- ☞ 동네의 부동산
- ☞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도움을 요청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이장의 협조가 매우 중요
- ☞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서비스 이용
www.congnamul.com www.maptopia. com www.hanmir.com 등
- ☞ 세탁소나 음식점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에 도움을 요청할 것

표본가구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가구에서 어떤 가구원이 최종 응답자로 선정되는지를 알아보자. 표본가구를 방문해서 그 주소에 현재 살고 있는 만18세 이상 모든 가구원들의 이름을 가구원 리스트에 기록한다. 모든 가구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니셜이라도 얻어내도록 한다. 이름을 얻은 후에는 각 가구원의 연령과 생일을 물어 보라. 연령을 가르쳐주지 않을 경우라도 생일은 반드시 알아내야만 한다. 생일은 양력이든 음력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 생일을 기록한다. **이 중 생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을 최종 응답자로 선정하고, 해당가구원의 번호에 체크를 한다.** (면접진행기록표-표본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리스트 <부록 3> 참조)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예시)

표본 가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9 푸른마을아파트 108-1101

가구 번호	
0	2

* 표본 가구에서 다음 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에 ○ 표 하십시오.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가구원 번 호	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생 일 (양력/음력 상관없음)
1	홍길동	본인	5 월 17 일	6	홍연우	딸	8 월 30 일
2	최영희	처	9 월 19 일	7			___ 월 ___ 일
3	홍철수	아들	4 월 5 일	8			___ 월 ___ 일
4	홍철우	아들	9 월 8 일	9			___ 월 ___ 일
5	홍연정	딸	6 월 7 일	10			___ 월 ___ 일

위의 예시의 경우, 최종 응답자는 생일이 '9월 19일'로 가장 늦은 '최영희' 가
구원이 최종 응답자가 된다.

이 리스트에는 사업차 잠시 출장중인 사람은 포함되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제외된다.

- ▷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상당 기간 출타해있는 사람
- ▷ 잠시 방문중인 손님
-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어린이
- ▷ 한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응답자를 선정했으면 바로 면접을 시작한다. 선정된 응답자가 그 자리에 있
다면 즉시 면접을 시작한다. 만일 응답자가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면접 약속을 받아낸다. 가구원 리스트를 받는 과정까지 진
행시켰다면 면접을 얻어내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표본가구 방문 및 면접시 주의 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표본대체(sample substitution)**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표본대체로는 가구대체(미리 정해진 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를 선정하는 것) 및 응답자대체(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자를 선정하는 것)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여하한 표본대체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서베이리서치센터는 조사가 정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표본을 “조사 불가”로 처리할지언정 대체를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조사원은 무엇을 말할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신분증과 협조 공문, 본 연구소 안내책자 등을 항상 지참하고,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적절한 의상을 갖추어야 한다. 표본가구를 방문하면 우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방문시에는 조사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학생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힌다.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는 조사원의 경우 KGSS를 주관하는 본 연구소보다는 자신의 학교를 밝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조사원은 안내책자 등을 제시하면서 조사의 목적을 잘 설명하되, 이 때 KGSS가 학술조사라는 점, 전 세계 40여개 주요국들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적 조사라는 점, 응답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혔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 때 설문지 표지에 있는 인사말을 그대로 읽어 줄 필요는 없다. 조사원이 이 내용을 숙지한 후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응답자에게 줄 사은품은 면접 시작 직전에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면접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설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가구에서 약간이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표본가구 혹은 응답자가 한 두 번 거부 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도 거부정도가 다르며, 계속해서 방문함으로써 조사원의 얼굴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거부 이유와 대처요령을 몇 가지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꼭 내가 응답을 해야 하느냐”며 다른 집에 가보라는 경우**

응답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혔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된 자료는 일반 국민, 공공정책입안자, 학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응답자의 의견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표본으로 뽑힌 다른 가구는 이미 참여 했으며, 해당 가구에서 반드시 면접을 해야 하므로, 오늘 면접이 어려울 경우, 다음에 다시 또 방문을 할 것임을 강조한다.

▶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경우**

이러한 응답자에게는 설문내용이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공공에 발표될 때 응답자의 이름이 절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응답자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재차 강조한다.

▶ **바쁘다고 말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언제 시간이 나는지 여쭙어 본 후 “다시 찾아 뵙겠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조사의 목적 등을 잘 설명하고, 같은 지역의 다른 가구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응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전혀 면접에 응해줄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다보면 응답자를 설득시킬 수 있으므로 한 두 번 방문한 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 **응답자가 남자 조사를원을 꺼리는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

주위에 위험한 이웃들이 많은지, 이 응답자가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에 있는 않은지, 혹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본다. 비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눈 접촉을 많이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신분증과 본 연구소 안내책자 등을 건넨 후, 실내에서 면접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고 생각될 경우 실외에서도 면접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다: “아주 날씨가 좋은데 귀하가 원하신다면 밖에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겨놓는다. 재방문시에는 여성 조사원과 동행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표본가구에 아무도 없을 경우**

이웃집에 물어보아서 표본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을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해둔다. 그리고 명함과 함께 래터지에 조사 내용과 해당 가구에서 설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을 한 후 명함과 래터지를 문 안쪽 등에 놓고 온다. 이 때 조사협조공문과 본 연구소 안내책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락처 등을 함께 놓고 와도 좋다. 그러면 다음 번 방문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재방문시에도 표본가구에 아무도 없을 경우 시간을 체크한 후 방문 요일과 시간을 달리하여 접촉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평일에 직접 만나려면 오후 7시 정도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파트 경비원이 방문을 거부할 경우**

추출된 표본지역이 아파트 단지인 경우 간혹 경비원이 조사의원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학생신분임을 강조하고 판매나 광고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의 설문조사라는 사실로 경비원을 잘 설득해야 한다. 혹은 설문지나 인센티브를 가방에 넣은 후 조사원이 아닌 것처럼 출입을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는다.

▶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이나 저소득층 응답자들의 많은 경우 자신은 잘 모른다면서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조사는원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모르겠다라고 응답

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설득을 한다.

▶ 응답자가 없고 다른 가구원만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면접 약속을 받아낸다. 응답자를 설득할 때, 직접 만났던 가구원의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이 가구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답자의 연락처나 응답자가 주로 언제 집에 있는지 물어보라. 응답자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으로 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전화번호를 묻는다. 만일 대답해주지 않을 경우 응답자가 언제쯤 있을 것 같은지 추측해 본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을 것 같은 경우 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이들만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집 전화를 물어 전화번호를 파악한 후 저녁 때 정중하게 전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다음 시간 약속을 잡는다. 다시 방문을 한다면, 가급적 주말이나 주중의 이른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 농촌의 경우 농사철에는 논·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응답자가 없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른 가구원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사협조가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다.

▶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이 조사연구가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연구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이 면접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1) 귀하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있습니다; (2) 저는 귀하가 편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편한 시간에 여기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관점은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5) 귀하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등을 말해줄 수 있다.

▶ 응답자가 다른 일들로 분주한 경우

간혹 자영업자의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러가거나 논이나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면접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옆에서 잠시 일을 거들어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응답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과 잠시 놀아주는 것도 좋다.

▶ **응답자가 응답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응답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면접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친절히 대해 조사원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조사원이 면접을 위해 시도한 모든 과정을 연구원보에게 일단 설명하고 다음 과정을 상의한다. 응답거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조사진행기록표-표본가구방문기록(부록3)》에 이 가구의 번호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조사원은 모든 표본가구에 대해서 면접을 성사시키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항상 표본가구방문기록에 남겨두어야 한다.

표본 가구 방문기록(예시)

횟수	방 문 일 시	완료여부	미완료 이유	
1	7 월 1 일 금요일 5 시 (오전/오후)	미완	방문을 했으나, 아무도 없었음	<input type="text"/>
2	7 월 3 일 일요일 7 시 (오전/오후)	미완	응답자 또는 가구원이 재방문을 요청함	<input type="text"/>
3	7 월 4 일 월요일 11 시 (오전/오후)	미완	1차 면접거부	<input type="text"/>
4	7 월 7 일 목요일 7 시 (오전/오후)	완료	완료	<input type="text"/>
5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6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7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8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9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10	__ 월 __ 일 __요일 __ 시 (오전/오후)			<input type="text"/>

▶ **면접도중에 응답을 더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고 계속 면접을 시도한다. 면접이 너무 길어 응답자가 지루해 할 경우에는 설문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으며 만일 특정 문항 예컨대, 학력이나 수입 등을 말하는 것을 꺼릴 경우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 응답자가 시간상의 이유로 거부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면접할 날짜를 잡도록 한다.

▶ 선정한 주소에 찾아갔는데 만18세 이상의 가구원이 없거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그 가구에 사는 사람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연구원이나 본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가구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조사원은 《조사진행기록표》에 이 가구의 번호와 함께 자세한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사의 불가능여부의 판단은 조사원이 임의로 내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연락을 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 응답자나 다른 가구 구성원과 대화를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에 사는 4-50대 여성에게는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적절할 것이나, 도시의 30대 주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머니’도 많이 사용하는 호칭 중의 하나이나 때로는 이것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응답자를 접촉하고 면접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 ☞ 응답자가 없을 경우 시간 및 요일 등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방문해 보았는가?
- ☞ 응답자가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이 연구의 소개책자 및 조사원이 다녀갔음을 알리는 기록 등을 남기고 왔는가?
- ☞ 응답자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가구의 경우, 응답자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이웃집 등에 물어보았는가?
- ☞ 외부인 접근이 차단되는 건물의 경우 접근 방법에 대해 의논했는가?

3) 면접하기

(1) 면접 분위기 조성

표본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원은 면접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

- ①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소득,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성격의 질문을 많이 다루므로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그들의 비밀을 위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면접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조사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응답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

- ☞ 배우자가 면접 내용에 관심을 보일 경우, 자신이 가져간 여분의 설문지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살펴보거나 기입하도록 한 후 이 설문지는 나중에 폐기함으로써 조사 자료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 ☞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경우, 응답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돌보아달라는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도록 부탁한다.
- ☞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응답이 옆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체크를 하도록 한다.
- ☞ 간혹 조사원 두 명이 동시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면접은 조사원 한 명이 진행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조사원은 응답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전문적인 분위기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답자는 조사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더 협조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면접 오류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가 조사원을 친구로 여기게 되면 그 응답은 전문적인 협조 분위기를 유지할 때와 사뭇 다를 것이다.

- ③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시작한 면접은 중단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재차 방문하여 면접한다. 어떤 응답자는 설문지를 두고 가면 자신이 기록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원은 직접 면접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야만 한다.
- ④ 조사원은 가치평가를 해서는 안되며, 응답자의 응답에 어떤 반응이나 감정을 보여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 ⑤ 어떤 응답자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조사원은 관심 있게 들어주면서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면접방법과 응답내용 기록

- ① 면접은 응답자에게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사원이 설문지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조사는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사원은 사전에 설문지 문항 하나하나를 검토, 그 구성과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여 조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설문 문항 외에도, 설문에 대한 설명서 (예: 프로빙 지침) 또한 충분히 숙지하여 응답자가 설문을 이해하고, 가능한 '모름' 이나 '무응답' 을 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 ② 반드시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간혹, 설문지를 놓고 가면 작성해주겠다는 응답자들이 있으나, 최대한 설득을 해서 조사원과 응답자가 일대일 대면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질문은 쓰여진 그대로 읽어주어야 한다. 모든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구성된 것이므로 질문을 읽어줄 때 조사원이 어떠한 변화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사원 임의로 질문의 내용이나 어휘 등을 변경하는 것을 금한다.

④ 응답자가 질문을 처음에 정확하게 듣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원은 첫 번째 면접을 시도하기에 앞서 큰소리로 여러 번 질문을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질문들은 최대한 천천히 읽어주고 대화하는 톤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원이 급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응답자도 이 속도에 맞게 답하게 되는데 이것은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의 질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조사원이 모든 질문을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읽으면 응답자도 정확하게 응답하려고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질문을 읽을 때 평상시 대화에서 보다 더 천천히 읽으면서 강조해야 할 부분만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⑤ 보기의 숫자 가운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보기(①, ②, ③ 등)는 응답자에게 불러주고, 괄호가 쳐져 있는 보기((1), (2), (3) 등)는 불러 주지 않는다.

▷ 폐쇄형 질문 : 응답 보기가 동그라미 쳐진 상태로 이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원은 응답범주를 명확히 읽어준 후,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명확하게 체크한다. 만일 응답 내용이 보기 중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 경우 그 질문은 다시 프로빙되어야 한다.

예)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하에게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항상 이용하려고 한다 | <input type="checkbox"/> ③ 대체로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② 대체로 이용하려고 한다 | <input type="checkbox"/> ④ 항상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 | |
| <input type="checkbox"/> (8) 선택할 수 없다 | | |

▷ 현장 코드 질문 : 응답보기가 괄호 쳐진 상태로 주어져 있다. 보기를 읽어주지 않되, 응답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미 나열되어 있는 응답범주에 조사원이 체크를 하는 질문 유형이다

예)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또는 예배드리러 가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01) 일주일에 여러 번 | <input type="checkbox"/> (06) 일년에 한 번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02) 일주일에 한 번 | <input type="checkbox"/> (07) 일년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 | |
| <input type="checkbox"/> (03) 한달에 두세 번 | <input type="checkbox"/> (08) 전혀 가지 않는다 | |
| <input type="checkbox"/> (04) 한달에 한 번 | <input type="checkbox"/> (88) 모르겠다 | |
| <input type="checkbox"/> (05) 일년에 몇 번 | | |

▷ 개방형 질문 : 응답범주를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응답 보기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은 폐쇄형 질문보다는 많지 않다. 조사원은 응답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하거나 요약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만 한다. 응답자의 응답내용 기록은 명확하고 완전하며 자세할수록 좋다.

예) 귀하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보기번호를 기입하십시오)

55.1 산업: _____
55.2 직업: _____

- ⑥ 모든 항목들에 빠짐없이 응답을 얻어낸다. 설령, 앞의 질문이나 일반 대화 과정에서 이미 응답했을지라도 모든 질문은 응답자에게 반드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 질문은 앞에서 이미 응답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응답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 ⑦ 문항 중 '보기카드'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항은 보기카드의 해당범주를 응답자에게 보여주어, 응답자가 응답하려는 범주를 선택하게끔 한다.
- ⑧ 면접 도중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질문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응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 조사에 포함된 수많은 문항들 전체를 통틀어서 조사원은 무응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정도로, 모든 문항들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유효응답이 있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지속적으로 대답하거나 응답을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모르겠다'라고 기록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또한 보기 가운데 기타가 체크될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 넣어야 한다.

프로빙 (Probing)

프로빙이란 조사원이 응답자의 답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완벽하고 명확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캐묻는 것을 말한다.

프로빙의 유형

- ▷ 잠시 멈추기 : 때로는 침묵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단순히 응답을 체크하는 것을 멈추고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응답자를 쳐다본다.
- ▷ 질문 다시 읽어주기 : 질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준다. 폐쇄형 질문의 경우, 응답자가 응답 범주에 없는 내용을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사원은 모든 응답범주들을 똑같이 강조하면서 전체 질문을 다시금 읽어준다.
- ▷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등으로 되묻는다.
- ▷ 일반성 강조하기 :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 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주관성 강조하기: “귀하의 의견에는--” 혹은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근접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다시 반복한다.
- ▷ 질문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 간혹 응답자의 개인적 의견이 너무 강해서 설문에서 주어진 응답 범주 가운데 응답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자세히 기록해둔다

- ⑨ 응답은 지침에 따라서 해당 보기에 체크하거나 해당란에 기록한다. 응답내용은 조사원이 직접 기록하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명확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가 불명확하거나 읽기 어려운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질문의 맨 오른쪽 끝에 위치한 박스는 전산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체크 또는 기록하지 않는다.
- ⑩ 설문 가운데는 어떤 응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자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는 “비해당”으로 체크한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조사원은 이것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 ⑪ 취업자의 경우, 해당 직업과 산업을 마치 소설을 쓰듯이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 ‘산업·직업 분류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직업과 산업은 매우 복잡한 분류를 가진다. 따라서, 연구자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

응답자의 정확한 직업과 산업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응답자의 직업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까지도 보낸다. 그러므로 직업은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느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스타일, 세계관, 건강상태, 경제적 지위까지도 결정하곤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집배원 혹은 바텐더라는 말만 들어도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일반화된 직업 타이틀로는 응답자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적절한 직업 코드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최악의 경우 응답자가 말한 것을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예단해서 잘못된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라고만 응답할 경우에 이 사무직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데이터 입력, 구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각은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산업 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나는 가구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 조사원은 응답자가 사업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구 제조 공장에 있는지, 수리를 하는지 혹은 가구를 파는 일을 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직업분류표와 산업분류표를 여러 차례 면밀히 읽어봄으로써 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⑫ 면접도중 특이한 내용(예, 비현실적인 설문, 지나치게 어려운 설문, 응답자가 완강히 응답을 거부하는 설문 등)이 발견되면 설문의 여백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둔다.
- ⑬ 응답자 설문이 완료된 후, 조사원은 설문지 마지막 장에 있는 '조사원 면접 상황 기록'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4) 면접을 마친 후

- ① 조사원은 진행상황과 절차를 연구원보와 항상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주 연구원보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연구원보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조사원은 조사 완료 후 완성된 설문지를 해당 지역의 연구원보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표를 받는다. **연구원보가 검표한 결과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응답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면접해서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위의 절차를 밟은 설문지는 다시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엄격한 통제 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조사원이 제출한 모든 설문지의 응답자들과 직접 접촉해서 표본가구 혹은 응답자가 대체되었는지, 면접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가 조사원과 접촉한 사실이 없거나 응답내용이 다르거나 부실한 경우 조사원이 제출한 모든 설문지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조사원이 표본을 임의로 대체하였거나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견될 경우 조사 수당 몰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④ 면접을 완료한 후 응답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얻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해서 자신이 서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응답자가 자신의 이름이나